

#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 더민주 앞서

### 17일 알앤씨치 조사 결과 6.6%p 높아...일주일 만에 반전

‘군기’가 바짝 뜬 더불어민주당과 ‘상기’된 국민의당, ‘호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등 각 당의 모습이 흥미롭다.

지난 16일 오후 원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대한 최종 경선 결과, 안호영 예비후보가 현역 박민수 후보를 물리치고 최종 본선에 임하게 됐다.

이로써 더민주의 11명의 의원 중 7명의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신인후보에게 지는 수모를 겪게 됐다.

최규성·강동원 의원은 공천배제, 이상직·박민수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금배지 도전을 힘들게 됐다.

재심에서 기각된 최규성 의원 등은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익산갑 선거구에서 이춘석 후보와 한병도 후보가 경선을 진행하고 있어 현역 탈락이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유성엽·김관영·전정화 의원은 자·타천 탈락 후 국민의당 품으로 들어가 더민주에 대한 실의감을 준비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 등의 컷오프 공천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무너뜨리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알앤씨치가 지난 13~15일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국민의당은 32.7%의 지지율을 더민주(28.1%)를 6.6%p 차이로 앞섰다.

지난주(3.6~8일자)에는 더민주가 38.3%로 국민의당(28.2%)을 9.1%p 차이로 크게

앞섰지만 일주일 만에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더민주가 지난주에 비해 호남에서 12.2%p나 폭락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3.5%p 급등했다.

강동원 의원 등에 대한 더민주 공천 후폭풍이 도민들 사이에 반민중적 진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상기된 표정이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더민주당 현역의원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중요성과 독점을 깨는 경쟁정당의 모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섰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적절한 위협요인과 자극이 필요하다는 메기론을 예로 들며 ‘더민주의 현역 의원 등이 탈락하는 모

습을 보면 지역민이 많이 깨우치기 시작했다’는 느낌과 그만큼 주민 여론이 매섭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필요로써의 공천을 통해 지역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열투사이에 흠뻑 젖어 있는 새누리당은 호기를 맞고 있다.

제17대 총선 당시 도내 11개 선거구에서 본 후보 1명으로 총선을 치렀던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제 전 지역구에 후보는 물론 일부 선거구의 경우 3: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만큼 도당의 입지가 상한가를 향해 치솟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최근 전북에서 새누리당 고정 지지율이 10~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후보들 간에는 한 번 해볼만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4.13 선거 RUN·RUN·RUN

### 정동영 예비후보, 월남참전용사 전투수당 지급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는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월남참전용사 전투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호 법률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17일 전주시 덕진구 향군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전북 전주시지회 정기총회 및 호국승계대회’에 참석해 월남참전자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과일 장병들의 생명수당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국가 기간사업에 투자한 정부가 이제는 기본 참전수당 외에 생명수당을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정운천 예비후보, 소방대원 애로사항 청취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는 17일 전주완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방시설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여명의 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완산소방서는 매일 평균 60회 긴급상황에 출동하고 있고, 각종 화재와 안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제태환 서장은 “일부 시민들의 오인 신고로 대원들이 허탕치는 경우가 가장 아쉽다”면서 “허리디스크,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같이 소방대원들이 겪는 직업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운천 후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소방서에 허위신고는 하는 경우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면서 “소방대원들의 직업병을 치료하기 위해 대원들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 한명규 예비후보,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촉구

한명규 국민의당 전주를 예비후보는 전북도의회가 지난 16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 예비후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고향을 지정해서 기부하면 국세에서 그 만큼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어 “일본처럼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명칭보다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일본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세금 혜택과 함께 고향회화 및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고민형 기자



###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 선언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이 제20대 4.13총선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국보위 김종인 대표의 북한 개별론,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외교 비례대표 유력시되는 이수혁 위원장의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 활동전력은 민주당이 햇볕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닮았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야당인 국민의당이 올바른 야당이 되려면 반드시 햇볕정책의 계승이 필요하다”며, “외교통일 전문의원”으로서 “당의 정체성(햇볕정책 계승)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전주 덕진구 국민의당 예비후보였던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일 선당후사와 전주승리를 호소하며, 정동영 전장판에게 조건 없는 후보직 인보, 정치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예비후보직 사퇴 후 김 위원장은 의외로 현안 기자회견과 총선정책토론회에 당대표로 참석하는 등 당 정책수립과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 정동영 예비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역에서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이성주기자

# 새누리당, 김종인 대항마로 강봉균 영입 추진

### 김무성 선대위원장 “사전에 조율 본인 수락 하면 확정된 것”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맞설 카드로 DJ 정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봉균(72)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전 의원 영입 추진과 관련한 “

짜 발표’에 대해 “사전에 조율이 됐다. (강 전 의원) 본인이 수락을 하면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였던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에서 총선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만큼 강 전 의원 카드로 중도층 표심도 자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와 강 전 의원은 경제통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이성주기자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및 총선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주도한 인물로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11, 12대, 14대 국회에서 당선, 3선 의원을 지냈다.

강 전 의원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후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 개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제2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성주기자

## ‘원조친박’ 진영 의원 새누리당 탈당 선언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원조친박 진영 의원은 17일 “20년간 열정적으로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직 국민 편에서 일하겠다는 국

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오늘 저에게 이처럼 쓰러진 보복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원조 친박이자 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장관직을 사퇴, 이후 박 대통령이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그는 이번 공천에 대해 “국민 편에서 한 것 같지는 않다”며 쓴소리를 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하고 국민들과 상의해 결정을 하면 다시 말하겠다.”

/이성주기자

### 김광수 예비후보, '취업지원센터' 건립 공약

국민의당 김광수(전주사) 예비후보는 17일 노인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광수 후보는 “평소 어르신 복지시설이나 노인대학 등을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들이 많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됐다”며 “센터는 단순히 취업알선 등을 위한 교육차원을 넘어 배움의 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실버산업 분야의 생산물에 대한 제조와 유통 등까지 통합관리를 이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갈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조그맣고 지역인 전북은 실버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다 실버경제 영역은 향후 무한하게 성장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을 상기시키며 지역 특색 감안해 실버산업을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주 기자



### 김영일 예비후보, 역동적 혁신경제 비전 제시

새누리당 김영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익산 갑)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익산시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모토를 내걸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재정지출도 최소화하고 성장부채, 산업단지 분안률 저조 및 상가소득 침체 등의 익산시 민생경제 현황을 지적하고 향후 익산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300▲ 창조-대기업유치를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융합-새로운 산업 창출과 스마트화를 통한 선제적 미래대비, ▲도산-시장개척확대를 통한 전략적 마케팅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공약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 김 후보는 ▲부채해결을 위한 국내10위권 이내 메머드급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왕궁, 정족 불루디치 조기완공 및 우수인력 확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미륵사지 중시 전략적 관광 마케팅과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박종길 예비후보, 익산 전국제전 성공 지원 공약

새누리당 국회의원 익산(을)에 출마한 박종길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전라북도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국제전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전국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2016년 총선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경우 1,131억여 원, 2017년 총액은 1,779억여 원이 투입되어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 및 익산은 81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전국제전은 익산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박 후보는 “태릉선수촌장의 경험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경력과 정부와 여당의 힘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 전국제전을 그 어느 도시의 체전보다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고 굳게 약속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김정호 예비후보, 전주-원주 통합 지지 후보 유감

국민의당 김정호 예비후보(완주무진장·사)는 17일 전주·원주 통합을 지지하는 제20대 총선 일부 예비후보들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주시에 출마를 한 후보들의 공약들은 오히려 전주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어야 한다”면서 “완주·전주의 통합을 거론해 지난 2008년 통합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완주군민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는 완주군민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우롱하는 처사”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난 1997년, 2009년, 2013년 등 이미 3차례나 시도됐지만 현명한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거론했던 일부 전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법률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영수 기자



### 이영훈 익산시장 예비후보, 미륵사지 복원 추진

국민의당 이영훈 예비후보(익산시)는 17일 익산의 3대 미래전략으로 식품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도농융합의 지역순환경제를 제시했다.

특히 역사문화도시 미래전략과 관련, 미륵사지 복원사업을 추진해 익산시의 백제세계유산 대표도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황룡사 왕궁복원 사업을 근거로 익산에도 미륵사지와 왕궁 복원을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백제세계유산도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륵사지 복원 사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륵사지 복원을 위해 유네스코의 충분한 협의를 미륵사지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복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익산 미륵사지 복원사업을 국민의당 주요정책으로 제안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영수 기자



###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 분야별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강 후보)는 “행정을 넘어 경영의 힘”으로 더 행복한 익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시, 농업, 문화, 복지, 환경 등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다”고 17일 오전 10시 30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밝혔다.

강 후보는 “익산시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여 “시민들께서 납부해 주신 세금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강한 여조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는 “화성도시공사에 후자 경영을 경험으로 익산시를 빠른 시일내로 후자예산으로 일으키겠다”고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더 행복한 익산”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부채해결 전문가가 이 시점의 익산시장으로 최고의 책임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지지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김호서 예비후보, '김종인 대표 공약정치 사죄해야'

국민의당 김호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야권 분열을 위한 X맨 공약 정치 실체가 드러나고 김대표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여당과 박근혜 정권에 불리할 때는 항상 김대표의 도움으로 정국 변신이 이뤄졌다. 필라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총선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합당을 이야기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더니 이제는 야권분열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종인 대표, 당시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X맨의 가면을 벗고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와라”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